

IBKS CARBON FINANCE DIVISION

Invitation to Better Carbon Story

WEEKLY REPORT
VOL.15
2025.09.22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

TOP HEADLINES

- EU, 2040 기후 목표에 국제 탄소 크레딧 활용 합의, 조건부 지지 확산
- EU, 2035년 기후 목표 대신 '의향서' 채택, 공식 NDC는 불발
- 동유럽, 지역 CO₂ 저장 확대로 CCS 비용 48% 절감 가능성
- EU, 에너지 가격 격차 해소 위해 8대 인프라 병목 해제 추진
- EU, 역외국 ETS 도입 압박, CBAM 규정 강화 검토
- 항공업계, UN 총회서 글로벌 배출 협정 성사 최우선 과제로
- EU 포장재 규제, 내년 8월 시행, 한국 수출업계 '비상'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

EU, 2040 기후 목표에 국제 탄소 크레딧 활용 합의, 조건부 지지 확산

EU가 2040년까지 온실가스 90% 감축 목표를 추진함에 따라 국제 탄소 크레딧 (파리협정 6조) 활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집행위는 1990년 기준 배출량의 3%까지 국제 크레딧을 배정하고, 영구적 탄소 제거를 EU ETS에 포함시키는 안을 제안했으나, 계산 방식과 제도 설계가 불명확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회원국들의 입장은 크게 나뉘는 추세. 폴란드는 국제 탄소 크레딧 최대 10% 허용을 주장하며 적극적 태도를 보이는 반면, 스페인·핀란드·독일·네덜란드 등은 사용 시점을 2036년 이후로 제한하거나 환경적 무결성·품질 보장을 요구하며 신중론을 펼침.

영구적 탄소 제거의 ETS 포함에 대해서는 아일랜드와 네덜란드 등이 조건부 지지를 밝힘.

국제 크레딧이 EU 기후목표 달성의 보조적 수단이 될지, 핵심 수단이 될지는 내년 ETS 개정 및 영향평가를 거쳐 확정될 예정



EU, 2035년 기후 목표 대신 ‘의향서’ 채택, 공식 NDC는 불발

EU 환경 장관들은 다음주 UN에 1990년 대비 2035년까지 66.25%~72.5% 감축 목표 범위를 담은 의향서 (statement of intent)를 제출할 예정

이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구체적 수치를 확정하지 못한 임시 방편으로, 9월 29일 UNFCCC 공식 마감 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됨.

EU 차원의 NDC는 올해 말 브라질에서 열릴 COP30 기후 정상회의 전까지 확정이 필요

NDC와 2040년 기후 목표 논의는 10월에 열릴 정상회의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나, EU 내부적으로 2040년 90% 감축 목표를 둘러싼 대립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2035년 목표 확정도 지연되는 상황



동유럽, 지역 CO₂ 저장 확대로 CCS 비용 48% 절감 가능성

비영리 환경단체 클린에어 태스크포스 (CATF)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앙·동유럽 (CEE) 국가들이 지역 차원의 탄소 포집 및 저장 (CCS) 역량을 개발함으로써 산업 비용을 최대 48%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밝힘.

동유럽은 철강·시멘트 등 에너지 집약 산업이 많아 EU ETS 탄소 가격 상승에 취약하지만, 지역 내 CO₂ 저장소가 거의 없어 배출 가스를 북해까지 장거리 운송해야 하는 산업 경쟁력에 불리한 상황

연구에 따르면 자체 저장 인프라 구축 시 ETS 비용을 지불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며, 톤당 최대 96유로 (약 16만 원)의 절감 효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이를 위해 각국은 CCS 전략적 국가 계획을 수립하고, EU 및 국가 차원의 자금 지원, 초기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보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

동유럽이 CCS 인프라를 갖추어 탈탄소와 동시에 산업 경쟁력과 경제 회복력까지 확보할 수 있을 전망



EU, 에너지 가격 격차 해소 위해 8대 인프라 병목 해제 추진

EU 집행위가 유럽 내 에너지 가격 격차와 높은 전력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송전·수소·가스 인프라의 병목 현상 8곳을 해소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자 함.

프랑스-스페인, 덴마크-독일, 리투아니아-폴란드 등 국가 간 전력망 연결 강화, 북해 해상풍력 허브, 키프로스-그리스 전력망 등이 주요 프로젝트 후보로 거론

또한 포르투갈·스페인·프랑스·독일, 북아프리카·이탈리아·오스트리아·독일을 잇는 재생 수소 운송 회랑 (corridor)을 추진해 풍력·태양광 자원이 풍부한 주변 지역에서 생산된 재생 수소를 유럽 중앙부의 산업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공급하고자 함.

가스 부문에서는 발칸 가스관을 역방향으로 운영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산 이외의 가스를 더 쉽게 수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포함

EC위원장은 유럽의 국가별 전력요금이 최대 3배 차이나는 것을 언급하며, 에너지 병목현상 해소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해 EU가 개입하고 자금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밝힘.

EC는 연말까지 인허가 단축, 전력망 확충, 디지털화에 중점을 둔 유럽 전력망 패키지를 제안할 예정



EU, 역외국 ETS 도입 압박, CBAM 규정 강화 검토

EU가 내년 1월부터 철강·시멘트·비료·알루미늄·수소·전기 등 6개 품목의 수입품에 본격 적용할 예정인 CBAM에 대해 ETS가 있는 국가 설비에만 실제 배출 데이터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ETS가 없는 국가의 기업은 자국의 평균 배출량 수준과 생산 공정의 탄소집약도를 기반으로 한 기본값 (default values)이 적용, 이는 사실상 EU가 무역 파트너들에게 탄소세 제도를 만들도록 압박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이러한 변화는 특정 국가가 EU 수출만을 위해 청정 생산을 따로 운영하는 'resource shuffling' 을 방지, 국가 단위의 탈탄소화를 유도하고, EU 수입업자 입장에서 데이터 확보 절차를 단순화하는 장점이 있음.

다만 세부 기준과 역외 탄소가격 인정 여부 등은 여전히 논의 중



항공업계, UN 총회서 글로벌 배출 협정 성사 최우선 과제로

항공업계는 다음 주 (9월 23일~ 10월 3일) 열리는 ICAO (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에서 글로벌 배출 협정 (CORSIA)이 최우선 과제라 밝힘.

업계는 2016년 체결된 UN CORSIA 합의에 따라 탄소 크레딧 구매와 폐식용유 등을 활용한 지속가능 항공유 (SAF)사용을 통해 국제선 배출을 억제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크레딧 공급과 SAF가 모두 부족해 2030년까지 업계 배출을 5% 감축하겠다는 UN 목표 달성이 불확실한 상황

IATA (국제항공운송협회)는 이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항공산업이 기후변화 대응에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업계 전반에 자리잡고 있다고 강조

3년 주기로 열리는 금번 ICAO 총회에서는 항공 배출 감축 문제와 더불어, 조종사 정년 연장, 위성항법시스템 간섭 문제, 러시아의 ICAO 이사회 복귀 여부도 논의되지만, 배출 협정이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



EU 포장재 규제, 내년 8월 시행

한국 수출업계 ‘비상’

EU가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PPWR)’을 내년 8월부터 시행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될 전망

PPWR 규제는 기존 권고 수준이던 ‘포장재 지침 (PPWD)’을 의무 규제로 격상한 것으로 기업은 이에 따라 포장 완충재의 종이 대체, 불필요한 중복 포장의 감축 등 공정을 전면 개편해야 하며, 2030년 이후에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포장재는 시장 진입이 차단될 예정

식품, 화장품, 가전, 자동차 등 사실상 모든 수출 제품의 포장재가 EU 친환경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기업은 이를 입증하는 ‘적합성 선언서 (DoC)’와 ‘기술문서 (TD)’를 직접 작성해 제출해야 함.

EU 기준 미충족 시 통관이 거부되고, 허위 작성 시에는 리콜·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음. 수백~수천 개 품목의 성분과 재활용 가능성을 검증해야 하므로 기업은 막대한 비용과 공정 재설계 압박에 직면

업계는 EU가 전체 수출의 10%를 차지하는 핵심 시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저리 용자·세제 혜택·국제 인증 상호인정 체계 (MRA) 체결 등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구



IBKS 탄소금융본부 사업

탄소배출권

■ 규제 탄소배출권 트레이딩

- 국내 탄소배출권 장내 거래(KRX)
- 국외 탄소배출권 현물 거래(EU, 중국 등)

■ 자발적 탄소배출권 트레이딩

- VERRA, GS 등 매매
- 비규제 글로벌기업 대상 배출권 공급

■ 국내외 탄소배출권 사업개발

- 규제 및 자발적 시장 통용 가능 국내외 배출권 사업 개발 및 배출권 확보

환경에너지 파생상품

■ 에너지·원자재 선물 거래

- 탄소시장 유관 종목 개발 및 제공
- 원유, 납사, 곡물, EU배출권 등

■ 탄소배출권 펀드 개발 및 운용

- 업종별 특화 탄소배출권 펀드 상품화
- 국내외 탄소배출권 펀드 참여

■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조달

- PPA Offtaker / Spot REC 중개 & 주선
- 국내 발전소와 글로벌 RE100 기업 연계

탄소 금융조달

■ 구조화 상품 개발 및 중개

- Clean-Tech 기업 & 기술 & 설비 투자
- 주식, 채권, 원자재 등 파생결합분야 확대

■ 친환경 자산개발 PF

- 친환경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등
- 스마트팩토리, 친환경공정설비 도입 등

■ ESG 특화 벤처 투자

- K-Taxonomy 기반 평가 및 금융 제공
- 기업 성장 동력 & Value & 수익 확보

■ 유의사항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IBK투자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수수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IBK투자증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BK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6-20호
(2026.03.17 ~ 2027.03.16)

IBK투자증권 탄소금융부

carbon@ibks.com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